



광남일보



조간 제7982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음력 10월 21일)

광주로 몰리는 AI 기업들...도시 산업지도 '재편'

협약 체결 352곳 중 160곳 이전·설립...본사 이전 '29곳'
헬스케어·빅데이터·콘텐츠·반도체·자동차 등 분야 다양
에스오에스랩 '코스닥 상장'·투디지트 해외시장 사업 확장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단순 유치와 협약 체결에 머무르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실제 사무실을 열고 아예 본사를 옮기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도시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창업 공간·GPU 자원·실증 기반·사업화 지원까지 한 도시 안에서 기술의 전주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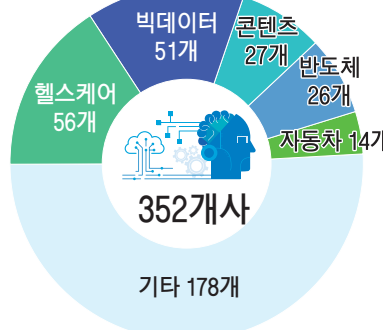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352개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 중 160개 기업이 실제 사무실을 열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

본사를 아예 광주로 이전한 기업도 29곳에 달한다. 단순히 공간만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 사업 거점을 이전하는 전략적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 기업의 업종도 눈길을 끈다.

헬스케어 56개, 빅데이터 51개, 콘텐츠 27개, 반도체 26개, 자동차 14개, 기타 178개 등 분야가 다변화되며, 서비스형 플랫폼 기업 비중이 높은 타 도시와 달리 광주는 도시·환경·교통·제조 등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 기술기업이 중심을 이룬다. 단순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닌 '문제 해결형 기술기업'의 집적자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AI 협약 기업 업종 현황



기업 유치 속도 역시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00개 AI 기업이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협약에 참여했다. 분기별로 1분기 20개, 2분기 27개, 3분기 28개, 4분기에 25개 기업이 잇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증가세가 꾸준하다. 반려동물, 바이오, 로봇, 기후기술, 산업 자동화 등 분야도 크게 넓어지면서, 도시 전체의 산업 구조를 바꾸는 기업 유입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를 선택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이유는 '입주 이후의 성장 경로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대부분 기업은 광주시에 운영하는 AI창업캠프에서 최초 기반을 다진다.

광주는 123개의 창업 공간을 무료로 지원하고, 기술 개발·데이터 실증·사업화·마케팅·투자 연계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AI기업협력센터를 운영한다. 도시 전체가 기업 성장의 플랫폼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 성장의 핵심 인프라는 AI데이터센터(AIDC)다. 고성능 GPU 자원을 제공해 초기 컴퓨팅 비용 부담이 큰 중소 AI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돕고 있다. 실제로 창업 캠프에서 출발한 다수 기업이 AIDC 실증을 거쳐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후 광주 지사 설립 또는 법인 전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른다.

대표적으로 라이더(LiDAR) 기업 ㈜에스오에스랩은 GIST 연구팀에서 출발해 광주 실증을 기반으로 3D 고정형 라이더 등 고부가 기술을 상용화했다.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기술 난도를 바탕으로 총 537억원 투자 유치와 코스닥 상장까지 성공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기업도 있다.

핀테크·언어처리 전문기업 ㈜투디지트는 세계적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대형언어모델(LLM) 평가에서 95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세계 AI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창업캠프 입주 후 기술 개발 속도를 높여 미국·아시아 시장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녹조 제거 로봇을 개발한 에코피스는 광주 실증 기반으로 CES 혁신상 3관왕, 에디슨 어워드 금상 등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매출도 1년 만에 150% 증가했다. 대화형 AI 엔진 기업 ㈜페르소나AI는 KOLAS 공인 테스트에서 100% 응답률을 기록해 260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무한정보기술은 광주에서 확보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2면서 계속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오른쪽)와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가운데), 이상익 함평군수가 9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스마트 타이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6609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함평에 스마트 생산기지 구축

전남도와 6609억 투자협약...글로벌 모빌리티 거점

연간 530만본 생산 규모 공장...2028년 본격 가동

금호타이어가 함평에 연간 530만본 생산 규모의 공장을 건설, 2028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관련기사 5면

전남도는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금호타이어와 미래형 스마트 타이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6609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 이상익 함평군수 등이 참석했다.

도는 이번 협약이 함평에 새로운 핵심 거점기업을 안착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차 시대에 부합하는 고성능 타이어 생산기반을 구축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인구 유입 확대에 따른 소비 증가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 상권과 생활경제 전반에 새로

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지역 앵커기업으로서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협력 기업의 투자 유입을 촉진해 전남 미래차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1단계로 6609억원을 투입,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미래형 스마트 타이어 생산공장을 설립한다. 함평 신공장은 연내 착공해 202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준공 이후 연간 530만 본 규모의 생산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중장기적으로 2단계 투자를 통해 광주공장의 전면 이전을 계획 중이다. 이전 시 생산공정 통합과 물류

효율화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솔라 시드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전남형 미래차 전략 사업과 연계해 전남이 글로벌 K-모빌리티 전략 거점으로 도약하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함평신공장 건설은 금호타이어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적 투자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금호타이어는 함평신공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가치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금호타이어 함평 신공장은 전남 제조업 혁신을 이끌 미래차 핵심 부품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을 위해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박정원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TF 회동 17일 열릴듯

국방·국토·기재부 등 참여...정부 보조 문서화 주목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논의하는 첫 6자 회동(TF)이 오는 17일께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조율하는 이번 회동에서는 민간공항 선(先)이전과 정부 지원 범위, 이전 방식 등을 문구로 확정하는 문서화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공항 이전 논의가 19년 만에 실질적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9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양 시도

와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는 17일 전후 광주에서 공항 이전과 관련한 첫 6자 공식회의를 준비 중이다. 이는 지난달 19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김웅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석한 4차 회동 이후 한 달여 만에 논의가 정부 부처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그동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방부와 기재부, 국

토부가 각각 군공항 이전 절차와 예산 투입 방식, 광주공항 이전부지 조성 방향 등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공항 선 이전과 지원 원칙을 공식 문서로 정리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회동 결과에 따라 향후 공항 이전 로드맵의 윤곽이 본격 드러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첫 회동은 17일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6차 회동에서 이를 문서화하는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공항 이전 논의는 가장 큰 고비를 넘는 셈"이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